

민형배 복당 촉각...향후 판세 요동

광신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역구인 광신읍은 현역 의원의 아성에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성진 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 최근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표밭갈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 전 선임행정가는 첨단에 '광주 혁신 경제연구소'를 열고 광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포럼 개최를 준비하며 인지도를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민형배



김용재



김성진



박시종



안태욱



전주연



정재혁

국민의힘은 TBN교통방송 사장을 지낸 안태욱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이사가, 정의당은 김용재 전 중소기업인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이다. 진보당에서는 전주연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나선다. /김일현 기자

지역 최다선 이개호...선거구 재편 가능성

담양·함평·영광·장성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광주·전남 최다선(3선)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아성이 탄탄하다. 내년 총선까지 1년여 남은 현재까지 이 의원에 필적할 대항마를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선거구 재편이 유일한 변수로, 담양이 곡성 지역구와 합쳐지고, 영광이 무안·함평과 묶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특유의 전문성으로 발휘했고,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정책 제검토 등 다방면에 걸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 의원과 맞설 상대로는 이석형 전



이개호



박영용



이석형



최형식

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정책 제검토 등 다방면에 걸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 의원과 맞설 상대로는 이석형 전

함평군수, 최형식 전 담양군수, 장현 송원대 명예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용 당협위원장이나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근산 기자



서동용



권형엽



유현주



이용재



추우용

호불호 갈리는 서동용에 이용재 와신상담

순천·광양·곡성·구례

순천·광양·구례·곡성을 선거구는 내년 총선을 1년여 남겨놓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은 채 잠잠한 모양새다. 현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권형엽 전 더불어민주당 여성국당 등이 거론된다. 서동용 의원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

갈린다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21대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광양 황금지구 초·중학교 설립과 광양지역 학생 1인 1약기 교과과정 시범사업 등 교육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무엇 하는지 모르겠다"는 박한 평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인화 후보에게 광양시장 자리를 빼앗긴 점도 약재다. 서 의원에 맞서는 9·10·11대 3선 도의원을 지낸 이용재 전 의장이 주목

받고 있다. 오랜 지방자치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광양을 중심으로 한 높은 인지도에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력도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분류를 삼긴 이후 와신상담 재기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우용 당협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유현주 광양지역위원장이 출진 준비를 마쳤다. /정근산 기자

전·현직 대결구도로...박지원 등판 관전 포인트

해남·원도·진도

해남·원도·진도는 전·현직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광주·전남 선거구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 가운데 하나다.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영호·윤영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진도가 고희인 박 전 원장의 출마는 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1992년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첫 배지를 단 이후 목포에서 2008년 무소속, 2012년 민주통합당, 2016년 국민의당 소속으로 4선에 성공했다.



윤재갑



박지원



정의찬



조웅

국정원장 퇴임 후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을 넘나들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특강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도 꾸준히 방문하며 눈도장을 찍고 있다. 옛 지역구인 목포와 서울 동대문 등 다양한 곳에서 그의 출마설이 나오는 것도 견제함의 방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해남 복일 출신으로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과 광주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등을 지낸 정의찬 전 경기도 수원 월드컵 재단 사무총장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웅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정근산 기자

김희재 맞서 권오봉 만만찮은 세 과시

여수

여수를 역시 여수갑과 같은 입장으로, 입지자들 모두 유풍리를 따지며 선거구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구도 내에서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에 맞서 권오봉 전 여수시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프리미엄 등에 업은 김희재 의원이 판을 주도하고



김희재



권오봉



조계원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으로 시의원 3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등 균열도 적지 않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대항마로는 권오봉 전 시장이 높은 인지도 등을 기반으로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전 시장은 최근 '여수미래포럼'을 만드는 등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선거구 지각변동 중심...주철현 독보적

여수갑

여수갑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섀베퍼 복잡한 지역으로 꼽힌다. 오는 31일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시점인 가운데 인구하향선 기준에 미달, 선거구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수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거나 여수갑, 여수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의 선거구를 여수순천갑, 여수순천을, 여수순천병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현 지역구 내에서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고영호



이용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홀로 뛰는 양상이다. 출마가 점쳐졌던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 등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으면서 총선 분위기도 좀체 뜨지 않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첫 배지를 달았던 김승남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김승남



김화진

에서 당시 현역이던 민생당 황주홍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농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바탕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부지런함에 지역 현안 해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등 지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화진 도당위원장이 출진 준비를 마쳤다. /정근산 기자

김승남 입지 탄탄...국힘선 김화진 출전



소병철

김문수

서갑원

손훈모

오하근

이성수

이정현

천하람

허석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아직 잠잠한 다른 지역구와 달리 신발끈을 조여매는 여러 입지자들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필두로 허석 전 순천시장, 김문수 전 서울시장,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 오하근 전 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소병철 의원은 현직이란 이름값이 앞선다는 평가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노골적 공천 개입에 대한 반발과 국회의원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등은 약재로 꼽힌다. 허석 전 시장은 10년만의 국제정밀박람회 재유치,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 이해관계가 엇갈린 순천시청사 건립 확정 등 시장 재임시절 이른 굵직한 성과들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김문수 전 서울시장도 다크호스

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 송광 출신으로, 8·9대 재선 서울시장과 교육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라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를 오랜 기간 간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등 민주당 내 손에 꼽히는 복심으로 통한다.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를 두루 섭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안 해결 능력과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도 강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순천에서 재선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현 순천갑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도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보수정당 후보로

는 역대 두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1호 혁신위원을 지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정근산 기자

4면으로 이어짐